

‘아슬아슬’ 난간 안전사고 무방비

연장출동 **우후죽순 ‘루프탑 카페’ 가보니**

대부분 건축법 기준 못미쳐...법망 피해 영업 구청 “처벌규정 없어 현황 파악도 못해” 뒷짐

최근 광주지역 대학가 등 시내 중심 상권에 우후죽순 늘고 있는 루프탑 카페가 시설·운영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시민들 안전과 위생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관내 운영 중인 루프탑 영업장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음료나 주류, 식품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1일 오후 광주 북구 대학가 한 커피숍. 형형색색의 조명과 천막을 설치하고, 캠핑용 의자를 놓고 영업하고 있었다.

인근의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루프탑 카페 중 옥상의 난간이 건축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잠재돼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둘러본 광주 지역 내 3~4곳의 루프탑 카페의 경우 난간 높이가 건축법 기준(120cm)보다 난간 최소 3cm에서 최대 60cm 가량 낮았다. 난간 간격 또한 10cm 이하로 규정을 뺐지만 대부분의 업소는 이를 무시해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노출돼 있었다.

현행법상 건물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서 제외돼 허기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옥상영업시설인 루프탑은 식품위생법 36조 ‘영업장 외 영업’ 위반 외에도 불법 용도변경에 영업장 확장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

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주들은 야외에서 소비자들이 주류나 음료, 음식 등을 먹을 수 있게 유도해 법망을 피해 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

업주 A씨는 “3년 전쯤부터 루프탑을 설치해 운영하는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계산이 끝난 뒤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불법영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 후 밖에서 식사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루프탑 카페 영업장 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관내에 루프탑 카페 현황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지역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루프탑 카페가 시설 운영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시민들 안전과 위생에 구멍이 뚫렸다. 사진은 북구 한 대학가 루프탑 카페에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오늘의 날씨

목포	나주	광주	순천	광양
5~8	2~8	4~7	5~9	5~9
여수	일출 07:23 일몰 17:20 월출 12:04 월몰 22:34			
장성	2~7	흑산도	7~10	
담양	1~8	구례	3~8	
화순	2~7	곡성	2~7	
영광	4~7	완도	7~10	
함평	3~9	강진	6~9	
무안	4~8	장흥	5~9	
영암	3~9	해남	5~9	
진도	6~9	고흥	4~9	
신안	6~10	보성	3~8	

목포	만조 05:24 18:15 간조 10:39 23:39	여수	만조 00:02 12:51 간조 05:58 19:11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광주·전남 내일부터 영하권

광주·전남지역에 내리는 겨울비가 2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다.

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2일 새벽까지 광주·전남 20~30mm·전남 서해안의 경우 5mm 비가 내릴 것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7~10도가 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후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3일부터 영하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음주운전사고 경찰 간부 입건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내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29일 밤 10시 30분께 남구 송하동 효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다.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중찬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내일 항소심 선고

광주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오는 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 2부(판사 김무신)는 3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 대법정서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씨(49)에게 당내 공천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지 않고,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보낸 점 등을 미뤄 공천 대가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윤 전 시장 측은 노무현 전 대

통령과 인연 때문에 사기꾼 김씨 말에 속아 돈을 보냈을 뿐 “공천과 무관하고, 부덕의 소치”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윤 전 시장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윤 전 시장과 검찰은 원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기범에게 보낸 금액이 공천 대가성인지 여부를 두도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윤 전 시장 측은 “김씨의 사기행각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공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사기범 김씨가 공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윤 전 시장이 응한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고광민 기자

“벤츠 싸게 사 줄게”...피해자 고소장 접수

무자격 중개인 수 억원 끌궜

억대에 이르는 수입 승용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한 중개인이 돈만 쟁겨 달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10여명이 사기 등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억원이 훌쩍 넘는 벤츠 승용차를 수 1,000만원 싸게 살 수 있다는 중개인 A씨에게 속아 공식 판매점을 직접 거치지 않고 구매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계약금을 결제하고 잔금 성격으로 추가 대금까지 전달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차를 받지 못했다.

벤츠 차량 영업 자격이 없는 A씨는 구매자 불래 약속한 할인가가 아닌 정상 가격으로 공식 판매점과 차

구매 계약을 맺었다.

공식 판매점 소속 영업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실 구매자가 아닌 중개인 A씨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점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차를 출고하지 않았고, A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돈은 수 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판매점은 중개인과 거래한 영업사원을 해고했으며 계약금 환불 여부 등 후속 조치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정할 방침이다.

/김중찬 기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차별 회사 대표 벌금형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시키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판사 황혜민)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회사 대표 A씨(49)와 회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환경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 지급 및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B씨를 휴직 전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휴직 전 임금 220만원 보다 2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8068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9. 7. 7)

www.s-class.co.kr

중흥S-클래스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선릉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